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제10주기 행사와 관련하여

역대 총여학생회를 하셨던 선배 언니들에게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가 드립니다.

98년 3월 27일

올해 총여학생회가 10주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여성운동이 대중적으로 자리매김된지 10년이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10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총여학생회 제10주기 행사는 지난 10년 간의 여성운동의 발자취를 되살려보고, 현재의 여성운동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는 총여학생회를 했던 선배 후배 간의 친분을 더욱 승화시켜 역대 총여학생회와 현재의 총여학생회가 함께 여성운동의 지속성을 고민할 수 있는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좁게는 사회에 있는 선배들과 현재 학교에 있는 활동가들 개개인이 자신의 전망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넓게는 사회와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1. 5월 대동제 기간에 현재 총여학생회와 역대 총여학생회 선배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미 1대 선배님과 6대 선배님과 논의가 오고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주기라는 것이 단지 '의무' 내지는 '대의 명분'이 아닌, 서로에게 그 의미가 깊게 세겨져야 한다는 것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10주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5월 행사가 10대 총여에게는 상반기 활동이, 역대 선배님들에게는 그 간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하게 된 고민들이 총화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10대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지만, 5월 행사는 오히려 총화의 자리가 되기 보다 시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전에 비해 보다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만나 서로 간의 '친분'을 도모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시 : 5월 셋째주

장소 : 신촌에 있는 식당

대상 : 1대부터 10대까지의 총여학생회 간부 및 현재 여학생처에 계신 분들

## 2. 총여학생회 10주기를 보다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발전을 '음미'해 볼 수 있는 10월 '여성제'를 제안합니다.

작년 봄에, '여성자치연합'의 다양한 여성모임들이 제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을 개최해 학내 여러 모임들 간의 연대와 직접민주주의적 자치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학생처와 여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여성문화포럼 'Where are You?'가 개최되어 학교와 교수님들, 학생들이 함께 여성문화의 활성화를 고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제'를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더욱 대중적인 여성운동 활성화의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가 건설된 지난 10년 간의 여성운동의 변화와 역사를 되살려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10대 총여학생회의 올해 여성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5월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가을 여성제 기간이 그 준비를 총화하는 자리, 그리고 장기적인 모임을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 10월 첫째주 내지는 둘째주